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심사평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Overall Review

국제경쟁

흰기러기상(대상) 수상작은 <143 사하라 스트리트>입니다. 독립심이 매우 강한 여성,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알제리 사막 길가의 찻집을 사랑스럽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인간 상호작용의 경이로움이 이 초상화를 메우고, 빼어난 카메라워크와 적절한 관찰자적 거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은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폭력의 그림자와 테러리스트들의 지속적인 위협이 가득한 카불의 위태로운 일상을 그리면서, 동시에 도시와 거주민이 가진 회복의 힘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더하여, 심사위원단이 특별언급하고 싶은 작품은 <라푸>입니다.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별언급합니다.

-국제경쟁 심사위원 일동-

International Competition

White Goose Award, the Grand Prize of the festival goes to **143 Sahara Street**. A loving portrait of a fiercely independent woman and her roadside teahouse in the Algerian desert, filled with respectful human interaction and shot in a perfect observational distance with striking camerawork.

Special Jury Award goes to **Kabul, City in the Wind**. A documentary of the precarious daily life in Kabul, always in the shadows of past violence and constant threat of terrorist attacks, with revealing details that show the resilience of the city and its residents.

We would like to make our special mention for **LAPÜ**. Sensuous and experimental, the film pushes the boundaries of conventional documentary.

by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Members

아시아경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수 있어 너무나 영광이었던 영화들은 또한, 우리를 아시아의 흥미로운 공간들로 이끌고 갔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삶의 방식을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화는 다분히 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되었지만, 또 한편 보편적인 사안으로의 확장과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족보다 더 미워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거실에 카메라를 두는 것보다 더 사적인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에 대하여>에서, 뭍바이 어딘가에 위치한 집은 보편적인 장소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외치고, 웃는 행위를 공유하여 가족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가정이고, 결혼이며, 무엇이 삶이고 죽음인 지를 우리 앞에 보여준 젊은 감독 아르차나 파드케의 의욕과 인내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경쟁 심사위원 일동-

Asian Competition

This Festival is located at a very special place full of history. Also the movies, that we had the great opportunity to watch, brought us to interesting places around Asia. We could experience and discover different ways of life. All the films are told in such a personal way, that they opened up for universal matters and interpretations.

Whom do you know better than your family? Whom do you hate and love more at the same time ? What is more personal than putting your camera in your own living room?

In ***About love***, a house somewhere in Mumbai becomes an universal place. We could see the meaning of family through eating, sleeping, shouting and laughing. We admire the motivation and patience of the young director Archana PHADKE who shows us what is love, home, marriage, what is death and what is life.

by Asian Competition Jury Members

한국경쟁

저희 심사위원들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통찰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용기와 집념으로 완성해낸 감독님들과 제작진들에게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선정된 10편의 작품들이 정치적인 이슈부터 개인적이고 실험적인 영화까지, 한국 다큐멘터리 지형을 한층 넓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스타일을 찾고자 하는 미학적 시도와 노력 역시 돋보였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한국 다큐멘터리 세계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게 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아쉽게 선정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심사위원들이 각 작품에 공명하는 바가 작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 수상작은 <그림자꽃>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국면 속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는 개인의 삶을 포착한 작품으로 심사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산 가족이 되어버린 한 가족의 아이러니를 남과 북의 국경을 뛰어넘어 한 영화 안에 공존하게 만든 감독과 제작진의 담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화이며,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준 용기 있는 작품입니다.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은 <증발>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가족들에게 남긴 지점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사건의 발화시점이 아닌 오랜 시간이 지난 후를 짚어냄으로써 비극을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인감독의 작품이라는 것에 더욱 지지를 보냅니다.

-한국경쟁 심사위원 일동-

Korean Competition

As the judges of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e applaud the directors and crew who have completed the courageous and devoted works with diverse issues that are insightful about Korean society. Ten selected works of this year presented the landscape of Korean documentary in a broader range, from political issues to personal and experimental films. The aesthetic attempts and efforts to find new styles also stood out, which proved that we could foresee the bright future of the upcoming Korean documentaries. We also would like to tell you that although we could not award all the works, that does not mean that the judges did not resonate with each work.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goes to *Shadow Flowers*. The film captures the life of a woman who has a politically complicated status in the fast-chang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judges agreed

unanimously to select this film and pay homage to the boldness of the director and the crew. The film conveyed the irony of a family being separated against their will, while keeping them coexist in the film beyond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It is the film that never existed before and showed the essence of a documentary film. And it is also a courageous work that shows the way we should go.

Special Jury Award goes to ***Evaporated***. This is the film with heavy contemplation, following the lives of people who experienced a sudden disappearance of a family member. It depicts the courage to overcome tragedy by capturing their lives long after the disappearance, not when the incident happened. We want to express more significant support as it is the work of a young director.

by Korean Competition Jury Members

ADF문화상 장편 <사이사-무지개의 기적>

<사이사-무지개의 기적>은 재일본 조선학교가 탄생한 70여 년 전의 그 출발을 기억하고자 하는 애정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한글과 학교를 지키기 위한 재일본 조선인들의 피, 땀, 눈물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켜내고자 하는 밝은 표정의 젊은이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경쟁 심사위원 일동-

ADF Feature Documentary Award - *Over the Rainbow*

Over the Rainbow is full of affection to remember the beginning of Zainichi Korean School in Japan about 70 years ago. With the solidarity, we applaud the bright-faced young people and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Korean Japanese who want to protect the Korean language and the school in crisis.

by Korean Competition Jury Members

단편경쟁

올해 단편경쟁 부문에 선정된 20편의 작품 중에서, 우리 심사위원단은 3편을 꼽고 싶습니다. 이 작품들은 개인적 경험을 보편적이고 동시대적이며 공유 가능한 사회적 감정으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작품은 모두, 인간적 관계와 과정으로 갈등이 찾아지는 이 세상에서 시네마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고수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발생시킵니다.

두 편의 작품에 주어지는 ADF문화상 단편은 <19호실>과 <바다가 기억하는 것>에 수여됩니다. 두 작품은 다큐멘터리의 윤리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영화적 요소들을 이용하는데, 이 방식들은 날카로우면서도 자기확신이 가득한 반면 가식이 없습니다.

<19호실>에서 이미지는 인간애와 사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사운드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를 본능적인 감각으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서구의 아시아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세계 정치학적 고통이 몹시 절제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 속에 농축되어 있는 영화적 에너지에 잠식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기억하는 것>은 실재하는 인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내재된 윤리적 문제를,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섬세하고 겸손하게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가족, 가정, 죽음이라는 예민한 공간에서 감독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내재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감독의 태도는 굉장히 정직하고 따뜻하며 이타적으로 느껴집니다. 가족이 과거를 직면하는 순간을 보편적 포용과 위로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더하여, 심사위원단은 <손, 기억, 모자이크>를 특별언급 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발화하는 지에 대한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개인적 목소리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이 작품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 정지하지 않는 시간, 불가해하고 불가역적인 죽음을 향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여성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연대하고 싶은 행위라는 점에서 환영의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유동적이고 잔인한 정치사가, 어떻게 한 인간 육체의 허약함을 경유하여 흘러가는지, 어떻게 치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오랜 흔적을 남기는 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단편경쟁 심사위원 일동-

Shorts Competition

The jury would like to recognize three films out of 20 short films in competition for successfully elevating individual experience into the common, contemporary and shared field of social emotion. All three films hold on to cinema as the language of our time in seeking catharsis from the increasingly conflicted worlds of human relations and processes.

The two ADF short documentary awards are given to ***Room 19*** and ***The Sea Recalls*** for their deep understanding of the ethic and essence of documentary expressed with sharpness and confidence, yet without pretension, in universally affective cinematic elements.

In ***Room 19*** Imagery glides in humaneness and philosophy while the soundscape does not only deliver emotions but ground the film to the visceral. In its beauty, deep pain that is relevant to world politics from the Asian experience in the West oozes with such control, that we are not simply carried in it but also encounter once again the concentrated power of cinema in short form.

The Sea Recalls navigates with delicateness and humility the inherent ethical issues in a documentary dealing with real people and the filmmaker's own family. In the sensitive space of family, home and death, the filmmaker takes his time to unravel an inner feeling, with honesty and warmth, without selfishness, expanding a family's confrontation of its past into a consoling universal embrace.

The Special Mention is given to ***Hand, Remember, Mosaic*** for pushing the boundaries of what and who cinema addresses. Beyond a story of trauma told in the personal voice, it is an attempt to shout out to a world that often does not listen, to time which wouldn't stop, to the unfathomable finality of death. The jury thinks that this film is an act of hope which, in solidarity as fellow women documentary filmmakers, we would like to give a welcome hand to. This film gives light to how the fluid and cruel political history in South Korea can flood through the fragility of singular human bodies and leave lasting traces that can only yearn for healing.

by Shorts Competition Jury Members

청소년섹션

우선 일곱 작품의 영화를 볼 수 있게 기회를 준 청소년섹션 감독님들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곱 작품 모두 주제나 소재 면에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각자의 색깔로 선명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였고 그런 점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 섹션 본선에 선정된 일곱 작품 모두 훌륭하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두 심사위원은 청소년 섹션에 여느 부문과는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잘 짜인 만듦새 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나'와 사회에 대한 관찰, 주제를 풀어내는 창의적인 방식, 문제를 대하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한상상의 선정작으로 아버지와의 어색한 관계를 '나'의 문제에서 '나와 아버지'의 문제로 확장시킨 시도가 인상적이었던 이성빈 감독의 <방 한 칸의 어색함..>을, 상상이상의 선정작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성적 소수자 Q에 대한 이야기를 신중하고도 대담하게 제시한 정수인 감독의 <Q에 대하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마지막 겨울 방학 동안, 스케이트보드 선수로서의 꿈을 가진 친구의 하루를 따라가며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과 결심을 완성도 높게 담아낸 김희준 감독의 <하루, 발자국>를 특별 언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연상에는 가족의 역사를 따라 전쟁의 아픔을 짊어낸 사진영 감독의 <할아버지에 대하여>, '동요'의 의미를 찾는 여정 속 행동력과 발랄함이 돋보였던 이현정 감독과 삼이세끼 팀의 <잃어버린 조각 찾기>,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결연하게 외친 유시온 감독의 <304개의 별>, 팬덤 문화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것 사랑에 빠진 팬들의 모습을 포착한 정호은 감독의 <더 팬>을 선정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섹션 일곱 작품의 감독님들께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심사를 하며 작품을 보는 한 편, 진솔한 매력을 가진 작품들 덕분에 그 안에서 드러난 감독님들의 고민과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작품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섹션 심사위원 일동-

Youth Film Showcas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thank the Youth Film Showcase directors and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ho allowed us to watch the seven films. All the works clearly described the worries and awareness of problems that the youth have in their own colors with the themes and materials exactly fit to the works. In that sense, all seven works selected for the Youth Competition were excellent and significant.

Prior to making the decision, the two judges agreed that different judging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the Youth Competition. We shared the importance of unfolding their own story in their original ways, even if the films are not well-organized like the works of professionals. And we also paid attention to the ways of observing of 'oneself' and society, creative ways of unfolding themes, and the attitude as a documentary filmmaker facing issues.

Considering above, we selected director LEE Sung-bin's *The Awkwardness of a Room* for Muhan-sangsang Award. The story was quite impressive as the director attempts to expand his awkward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from the problem of 'me' to 'me and my father.' For Sangsang-I-sang Award, we selected *About Q* by director JEONG Soo-in, which carefully and boldly presented the story of a sexual minority Q in church. The Special Mention is for *Day, Footprint* by director KIM Hee-jun. It describes the director's dream and determination to become a film director by following a friend's day who wants to be a skateboarder. For Jayu-yeonsang Award, we selected the following films. *A Man of National Merit* by SA Jin-young depicts the pain of war along with the history of the family. *Find Lost Pieces* by director LEE Hyeonjeong and her team is about a cheerful and practical journey to find the meaning of 'children' songs' with I. *304 Stars* by director YUE Si-on firmly stated a strong message of 'Never forget Sewol Ferry.' And *The Fan* by director JEONG Ho-eun captured the fans who fell in love, based on the affection for fandom culture.

Finally, we applaud the directors of the seven films in Youth Film Showcase with support and encouragement. During the process, we started to sincerely sympathize and root for the director's worries and lives described in the film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appreciations to the directors once again, who came to us with the works. I will finish the review in anticipation of seeing you with new works someday.

by Youth Film Showcase Jury Members

특별상

올해 소개된 한국경쟁과 한국다큐쇼케이스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겹겹이 쌓인 물리적인 시간을 투과하여 우리들에게 한국사회의 무수한 단면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2019 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지점들을 되돌아 볼 것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한 변화를 시작하는데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상의 의미는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된 작품엔 축하를, 선정되지 못한 작품 또한 마땅히 연대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영화적 실천으로 용기와 신념을 보여준 작품에 수상하는 용감한 기러기상은 사건으로만 기억되던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주민들의 마음을 긴 호흡으로 담아낸 <보통의 삶, -70>이, 미학적 실험과 빼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작품에 수상하는 아름다운 기러기상은 관광지로만 전락한 과거의 비어 있는 공간에 역사적인 숨결을 불어넣은 <언더그라운드>가, 새로운 시각과 패기를 담은 신인 감독의 작품에 수상하는 젊은 기러기상은 개개인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 뒤틀려버린 가족의 아픔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한 <증발>이 선정되었습니다.

-특별상 심사위원 일동-

Special Award

The documentary films introduced in Korean Competition and Korean Docs Showcase this year showed us countless aspects of Korean society through the accumulated layers of physical time. This raises a serious question that we should think now in 2019: 'What will we remember and what points to look back at?'

We can't change society with a documentary, but we believe it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initiating such a change.

We believe that the true meaning of Special Award is to support and encourage the filmmakers who are working on their works, not to distinguish the superiority of the works. We would like to ask you to praise the selected works and your solidarity and support for the works that were not chosen this time.

Brave New Docs Award is for the films showed courage and conviction through cinematic practice, and it went to ***Ordinary Life, -70***. The captures the minds of residents who struggled against building power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which was remembered only as an event. Beautiful New Docs Award is for the film with aesthetic experiments and outstanding visuals. This year, it went to ***Under-ground*** which brought the historical spirits into the empty space of the past, that has turned into just a tourist destination. ***Evaporated*** was selected for Emerging Documentary Filmmaker Award as it warmly observed and recorded the pain that a family is going through because of an incident that people can never deal with.

by Special Award Jury Members

개봉지원상 <그림자꽃>

<그림자꽃>의 서사는 이산의 경험이 없는 세대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흡입력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곧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주인공의 말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극장에서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쟁 심사위원 일동-

Supporting Theatrical Release Award - *Shadow Flowers*

The narrative of ***Shadow flowers*** has inspiring sentiments and stories that can reach even the generations who never experienced the separated families of North and South Korea. As the protagonist says that we can't meet now but soon we will, we hope that the film could be released and meet the audience soon.

by Korean Competition Jury Members

개봉지원상 <늙은 투쟁, 가 이야기>

<늙은 투쟁, 가 이야기>는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12년간 거리에 천막을 치고 투쟁해 온 김동애, 김영곤 두 선생님의 저항하는 삶과 신념을 균형감 있고 따뜻한 시선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시행된 '시간강사법'을 다룬 시의성 있는 작품이자 섬세한 관찰을 통해 포착한 장면들은 미학적으로 뛰어나며, 복합적인 캐릭터 묘사에서는 연출력이 돋보이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 중 관객들에게 쉽게 닿기 어려운 작품에 뜻을 달아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또한 극장이 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상 심사위원 일동-

Supporting Theatrical Release Award - *Old Fighter's Story*

With a balanced and warm view, the film depicts a life story of two teachers, KIM Dong-ae and KIM Young-gon. They have struggled for 12 years in a street tent demanding the reinstatement of the teaching position for part-time lecturers in university. The film describes the resistant lives and beliefs of the teachers, and it also has the timeliness as it covers the new 'Legislation for part-time lecturers' which was implemented last August. The scenes captured through detailed observations are aesthetically pleasing and showed outstanding work depicting the complex characters.

The judges selected the film as if we put a mast on an artistically outstanding work that is hard to reach the audience in the market. We hope that this film will meet more audiences while theaters can serve as a forum for public discussions.

by Special Award Jury Members

DMZ예술공헌상 <녹턴> 촬영

영화 <녹턴>이 전개되며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들에게 몰입하도록 만든 것은 많은 부분 촬영의 힘이었습니다. 성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을, 작위적이지 않은 촬영으로 가족들의 갈등을 낙관하며 살펴 볼 수 있게끔 건인해준 작품입니다.

-한국경쟁 심사위원 일동-

DMZ Arts Contribution Award - Director of Photography, *Nocturne*

At one point, it was mostly the power of photography that made the audience immerse in protagonists as the story unfolds. The natural cinematography helped the audience to hopefully observe the conflicts of the family, in the space surrounding Sung-ho.

by Korean Competition Jury Members

Sung-ho